‘승복 입고 운전’ 벌금 부과 논란

日 후쿠이현 경찰, “운전조작에 지장” 사유로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의 한 지자체에서 “승복을 입고 운전 시 사고위험이 있다”며 40대의 스님에게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구랍 2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9월 일어난 이 기막힌 사건을 특별 보도했다.

일본 중부에 소재한 후쿠이현(福井県) 경찰과 범칙금을 부과 받은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 오전 10시경 후쿠이현의 현도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사건이 발생했다. 스님은 “법회를 위해 가던 도중이었기에 승복을 입고 운전 중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관은 스님에게 “그 복장은 운전에 적절하지 못하다”며 경고장을 발부, 범칙금 6천 엔(한화 약 6만2천원)을 부과했다. 경고장 발부사유에는 ‘운전조작에 지장이 있는 전통의복으로 운전’이라고 기입됐다.

스님은 “20년 가까이 승복을 입고 운전했지만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항상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했다”며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였다.



‘#승복을 입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해시태그로 올라온 스님들의 저글링 등 묘기 영상. 사진출처=트위터

운전하며 법회 가던 스님
범칙금 6천엔 부과 논란
日 불교계 법적대응 고려
SNS에 경찰 비판 거세져

현장 경찰관과 후쿠이현경 교통지도과는 “현의 도로교통법 시행세칙에 ‘운전조작에 지장을 미치는 복장을 착용한 채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당시 스님은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승복을 입고 있었기에 운전조작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했다. 모든 승복이 위반인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해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체조사를 통해 일본 전국 47개 지자체 중 15곳에 운전 시 복장규정을 명시한 세칙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세칙이 잘 알려지지 않아 사찰관계자들이 종종 곤혹을 겪고 있다.

실제 같은 후쿠이현의 모 스님은 “운전할 때 소매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깨끈 등으로 고정해서 운전한다. 이런 규칙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또 다른 스님은 “도쿄나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는 위반이 아닌데,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이 오히려 이러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범칙금을 부과 받은 스님은 자신이 소속된 정토진종 서본원사파의 총무원과 변호사 등과 상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경찰의 독촉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 교통법에서는 경미한 교통위반의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실형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다만 교통법위반 용의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다.

스님은 “경찰의 논리는 출근하는 회사원에게 ‘양복을 벗으라’고 명하는 것과 같다. 승복을 입고도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판에서 주장하겠다”며 법원에 기소했다.

정토진종 서본원사파 측은 “이번 적발에 대해 내부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령은 준수해야하지만 승려 활동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해당 사건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이 매스컴에 집중되면서 불교계에서는 SNS를 통해 연대,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승복을 입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영상들이 연일 업로드 되고 있다. 영상 속 스님들은 승복을 입고 줄넘기나 저글링, 텀블링, 드럼 연주 등 운동량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며 “승복이 운전 조작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 출가를 금지하는 태국 법을 거부, 타국에서 비구니로서 계를 받은 태국 여성 부드사반 찬타웡. 사진출처=인디안익스프레스

‘비구니’ 되길 원하는 태국 여성들

여성 출가가 금지된 태국에서 변화의 조짐이 포착된다. 인디안익스프레스는 1월 10일 “태국 여성들이 전통을 거스르고 평등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최근 몇 년 새 비구니가 되길 원하는 여성들이 스리랑카 또는 인도에서 출가, 계를 받는 방법을 통해 전통을 타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 출가자들의 실상을 고발하며 지난달 타국에서 출가한 여성 21명의 소식을 전했다.

태국은 1928년 이후 여성 출가를 금지시켰다. 이 때문에 오직 남성만 스님이 될 수 있다. 여성이 종교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스님보다 덜 엄격한 규제를 따르는 ‘흰 옷’(일반 승려 가사와 다른)을 입는 수도승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는 사찰의 가사 업무만을 담당하기도 한다.

다만 태국 정부는 이것이 성 차별이 아닌 오랜 전통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불교 불모지’ UAE서 佛法 전파

〈아랍에미레이트〉

1999년 창건된 사찰 ‘마하메브나와’ 조명

불자 급증하며 분주해져
매일 1000여 대중 몰려

두바이 외곽에 위치한 아랍에미레이트(UAE)의 유일한 불교 사찰이 최근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소 폐쇄적인 UAE 종교계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자를 홀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

부디스트도어 1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마하메브나와(Mahamevnawa) 불교 사찰은 UAE 내 약 50만 명 불자들의 피난처이자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마하메브나와 사찰은 스리랑카 불교에 기반을 둔다. 1999년 ‘스리랑카 국민스님’으로 불리는 키리받고다 냐나난다 존자가 설립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유명 고승들이 불교 불모지와 같은 UAE에 방문해 부처님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다.

냐나난다 존자는 앞서 걸프뉴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UAE를 방문할 때마다 불자들로부터 받는 환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수백 개 국적과 종교가 공존하는 UAE에서 불교가 성장할 수 있다는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UAE는 우리(불교)에게 마음을 열었다. 나는 영원히 이 나라에 빚을 졌다”고 강조했다.

해당 수도원은 항시 개방되는데, 매일 전국 각지에서 1000명 이상의 불자들이 몰려든다. 금요일은 특히 바쁘다. 불자들은 사찰에서 수행 중인 2명의 승려들을 위해 음식을 기부하고, 사찰 유지·보수를 위해서만 현금 형태로 보시한다.

스리랑카인 불자 샘 에더리신게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우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며 “절은 우리에게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웃어 보였다.



마하메브나와(Mahamevnawa) 불교 사찰은 UAE 내 약 50만 명 불자들의 피난처이자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또 다른 스리랑카인 불자 사시카 라나신도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불교 사원을 찾는다. 도시화된 삶에서 우리 마음은 오염되고 쉽게 화를 내게 된다. 나는 마음 정화를 위해 이곳에 온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국가 공식 인구 조사에 따르면 UAE는 인구 76.9%가 이슬람교도다. 이밖에 기독교도가 12.6%, 힌두교도가 6.6%, 불교도가 2% 등을 차지한다. UAE의 불교도들은 중국·네팔·스리랑카·태국·베트남 등 불교 국가 출신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UAE 경제 개발이 본격화된 후 외국인 근로자로서 넘어온 경우가 많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찰이 반세기 지켜온 소극장

日 도쿄 중심가서 문화 지켜온 스님의 노력

도쿄 중심가 번화가로 손꼽히는 이케부쿠로를 50년간 지켜온 연극전용 소극장 ‘시어터 그린’. 도쿄 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 소극장을 절에서 경영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 1월 3일 일본 ‘도쿄신문’은 이 특별한 소극장에 대해 보도했다.

이케부쿠로 중심지를 조금 벗어난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 근처에 소재한 ‘시어터 그린’ 소극장은 지난 1968년 ‘이케부쿠로 아트 시어터’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관했다. 현재 지배인을 맡고 있는 아사히나 분스이(44) 스님은 극장 바로 옆 센교지(仙行寺)의 주지다.

분스이 스님은 “이 극장을 개관한 것은 선대주지이자 부친인 안죠(78) 스님 때의 일”이라고 전했다. 스님은 “당시 이케부쿠로 지역은 2차 대전 직후 암시장이 성행한 지역으로, 우범지대라는 이미지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안죠 스님은 ‘문화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인다면 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분스이 스님은 “연극과 불교 간의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찰은 사람들이 모이는 역할을 하는 장소로 지역에 녹아들지 않으면, 동네 사찰은 그저 풍경에 지나지 않는다”며 극장을 이어나가는 의미를 밝혔다.



현재 시어터 그린 소극장의 지배인을 맡고 있는 분스이 스님. 사진출처=도쿄신문

분스이 스님은 “처음 개관할 땐 무대와 객석 모두 대중스님들과 연극인들이 손으로 만들었다. 연극을 상연할 곳이 없던 신흥극단과 젊은 극작가들에겐 등용문으로 이름을 날렸고, 지금도 그들의 활동이 왕성하다”며 극장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지난 2005년 노후화로 리모델링한 극장은 170석에서 70석까지 대·중·소의 3개 극장을 갖춘 규모로 확장됐다. 또 12년째 학생극단을 지원하며 매년 연극제를 개최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 · 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 암 도

승정원장 석벽봉 승정 석화담 승정 석혜암
원로고문 석법령 원로위원 석일우. 석청산. 석우암. 석도명. 석정호. 석법산. 석법광. 석자광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담허	어 산 장	석도암
법계고시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청강	의전원장	석법도	비구니회장	석경호
총무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도흥	감찰부장	석성보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종우	사서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덕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호	포교국장	석혜성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국장	석원종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부회장	석효성	비구니부장	석지현	비구니국장	석충효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정현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종단법인 운영이사 이사장 도선 수석이사 남산 체법 일두 성만 성우
운영이사 청강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수선화 성덕 의공 학산 법광 혜림 혜화 법수 성담 성원

▪종단법률자문위원 변호사 : (明眞)김진우 | 법무사 : (雲虛)이익렬 | 세무사 : 이수열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 ·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보덕심 (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원장	혜 담 (이정민)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 임원

경남원장	도 혜	홍보부장	원 명	청주부장	혜 원
울산원장	법 광	부산부장	혜 성	전남부장	혜 명
경북원장	성 인	경기부장	자 운		
법사원장	목 암	구미부장	혜 진		
충북부장	상 학	대구부장	혜 련		

경남국장	성 광	포교국장	청 운	삼척국장	정 허
사업국장	소 현	통영국장	덕 인	영천국장	원 명
포교국장	덕 운	포교국장	혜 림	통역국장	정 연
종무국장	도 연	봉화국장	혜 정	포교국장	혜 경
서울국장	명 덕	화순국장	보 정		

■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무원 :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대표전화 02)303-5612